

타이완

SPECIAL PLAN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FOOD CULTURE

밥 먹으러 오세요!

SPECIAL PLAN

타이완 철도 투어

관광 격월간 2025 Sep - Oct

no.62

프런티어! 여행 
x
레저서리 캠핑! 



TAIWAN
WAVES OF WONDER





02



02



18



24

02 Feature Story

트레킹 여행 × 럭셔리 캠핑
타이완 새로운 힐링 여행

18 Food Culture

밥 먹으러 오세요!

24 Special Plan

타이완에서 한잔 하세요 -
와이너리 여행편



32 Special Plan

타이완 철도 투어

36 Column

골퍼들의 지상낙원! 타이완
다다오청을 걷다
타이난 골목 감성여행
신할수
타이완시 - 《산의 소리, 란양싼테①》



창간일시 2012년 5월
발행호수 62
발행일자 2025년 9월~2025년10월
대만관광협회 (台灣觀光協會) 회간
회장/발행인 簡余晏
명예회장 葉菊蘭
부회장 蘇成田, 凌瑋, 莊豐如
편집고문 鐘逸寧, 陳婷婷, 張仲宇, 劉宇庭
발행 재단법인 대만관광협회
주소 타이베이 중사오동로 4단 285호 8F-1
TEL 886-2-2752-2898 FAX 886-2-2752-7680
E-mail yasir@tva.org.tw WEB www.tva.org.tw

대만관광협회 서울사무소(교통부 관광청)
주소 서울시 중구 삼각동 115번지 경기빌딩 9층 902호
TEL 82-2-732-2357-8 FAX 82-2-732-2359
E-mail taiwan@tourtaiwan.or.kr WEB www.tourtaiwan.or.kr

대만관광협회 부산사무소(교통부 관광청)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72 907호
TEL 82-51-468-2358 FAX 82-51-468-2359
E-mail busan@tourtaiwan.or.kr WEB www.taiwantour.or.kr

발행처 시야국제문화사업유한공사
사장 胡代華
총편집 劉恩英
총감수 李建樹
기획 張芷菱
번역 金慧媛, 金那映, 宋善玉, 金雅煥
디자인 謝鈞霖, 蔡緯儒
업무부 萬麗娟, 呂麗君
발행부 江秀明
재무부 蔡慧君

주소 타이베이시 신이로 4단 265항 20층 5호
TEL 886-2-2325-2323 FAX 886-2-2701-5531
E-mail editor@v-media.com.tw
WEB www.v-media.com.tw

인쇄 엘리트 컬러 채색제판인쇄유한공사
판매가 NTS\$180
ISSN 3080-3462

中華郵政北台字第1866號
執照登記為雜誌交寄



타이완관광청



타이완홀릭
Facebook



타이완홀릭
Instagram

프러깅! 여행 
X
캠핑! 
적석계리 

타이완



새로운 힐링 여행

무더웠던 여름도 끝을 달리며 타이완의 날씨는 이제는 못견디게 찌는 날씨는 아니다. 낮에는 여전히 해가 강하지만 밤공기는 시원해지면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좋은 시기다. 이럴땐 먼 거리를 여행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준비를 할 필요도 없다. 편안한 신발과 여유로운 마음만 있다면 야외에서 힐링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타이완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형을 갖추고 있어 야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담없는 즐길 수 있는 야외체험과 감성을 결합한 ‘트레일 하이킹’과 ‘럭셔리 캠핑’이 인기가 많다. 더 많은 체력, 장비, 경험이 필요한 등산에 비해 트레일 하이킹은 비교적 친숙해 보인다. 글램핑과 같은 럭셔리 캠핑은 일반 사람들이 구비하기 어려운 캠핑 장비와 부족한 캠핑 경험에서 벗어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쉽게 친숙하게 해준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가벼운 하이킹 코스부터 산 속 깊은 곳의 신성한 나무들이 있는 비밀스러운 산책로, 미학과 편안함을 겸비한 캠핑장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이번 호에서는 도시 외곽과 산 속에 숨겨진 트레일, 하이킹을 후 온천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트레일 코스 등 각각 다른 6개 트레킹 코스를 선정했다. 캠핑 구역은 장소의 특성에 따라 산림형, 바다형, 레저형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캠핑장을 소개하며 산, 바다, 온천 등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캠핑 여행을 떠나보자.

타이완은 변화한 거리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웅장한 산과 숲, 풍부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치유의 섬이기도 하다. 지금, 바로 출발해보자!



하이킹 코스

☀ 도시외곽에서 느끼는 힐링



타이완은 산지가 많은 섬으로 수천 미터 높이의 산부터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는 교외 지역의 작은 산까지, 다양한 산과 숲의 풍경이 뒤섞여 풍부한 자연경관을 만들어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도심 외곽에 친숙한 하이킹 코스가 많기 때문에 굳이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다양한 풍경을 쉽게 감상할 수 있으며 산과 숲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치유 에너지를 가득 얻어갈 수 있다.





A 균함암의 표면은 평평하고 넓어서 풍경 사진을 찍는 인기명소가 됐다.
 B 가파른 지형과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하는 로프 등반 구간이 있어서 진미엔산 트레일은 제법 고난도 코스이다.
 C 따킹 트레일은 2번 코스는 능선을 따라 데크로 포장되어 있으며, 경사도는 최대 80도에 달한다.



A 균함암 트레일

정상까지 가볍게
인스타 핫플레이스

베이더우의 균함암은 타이베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 찾던 산책 명소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핫플레이스기도 하다. 양명교통대학 내의 등산로 입구에서 출발하여 약 20~30 분이면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능선에서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가 마치 산 꼭대기에 정박한 하얀 균함처럼 보이는데 독특한 모양과 넘치는 기세 탓에 균함암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바위 표면은 평평하고 넓어 많은 사람이 풍경을 즐기고 사진을 찍는 인기명소가 됐다. 균함암 위에 서면 타이베이 분지와 주변 산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방문하면 더욱 인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고 별도의 준비없이 오를 수 있는 도시형 하이킹 코스다.

B 진미엔산 트레킹코스

반짝이는
정상의 거대바위

타이베이시 네이후구에 위치한 진미엔산 등산로는 정상에 도착하면 타이베이 시내와 지롱강의 웅장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등산로 입구는 MRT 시후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이다. 고도는 불과 258m 밖에 안되지만, 가파른 지형과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하는 로프 등반 구간이 몇 개 있어서 이 트레일은 꽤 힘이 든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산길을 따라 드러난 암석 지형과 산 꼭대기의 거대한 바위 플랫폼이다. 태양이 바위에 비칠 때면 석영 바위가 반짝이는 황금빛을 반사해 '황금면산'이라고도 하는데 서정적인 느낌을 더해준다.

C 따킹 트레일

타이중 사람들의 뒷동산

타이중에 오면 산과 숲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따킹 트레일이다. 베이툽구에 위치한 따킹 풍경구는, 해발 112m 에서 860m 까지 길게 뻗어 있으며 10 개가 넘는 트레일이 있다. 이곳은 타이중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휴가를 보내는 곳이다. 가장 대표적인 험난한 트레일은 2 번 코스로, 2 번 코스는 능선을 따라 데크로 포장되어 있으며 경사도는 최대 80 도에 달한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봐야 할 곳이다.



고목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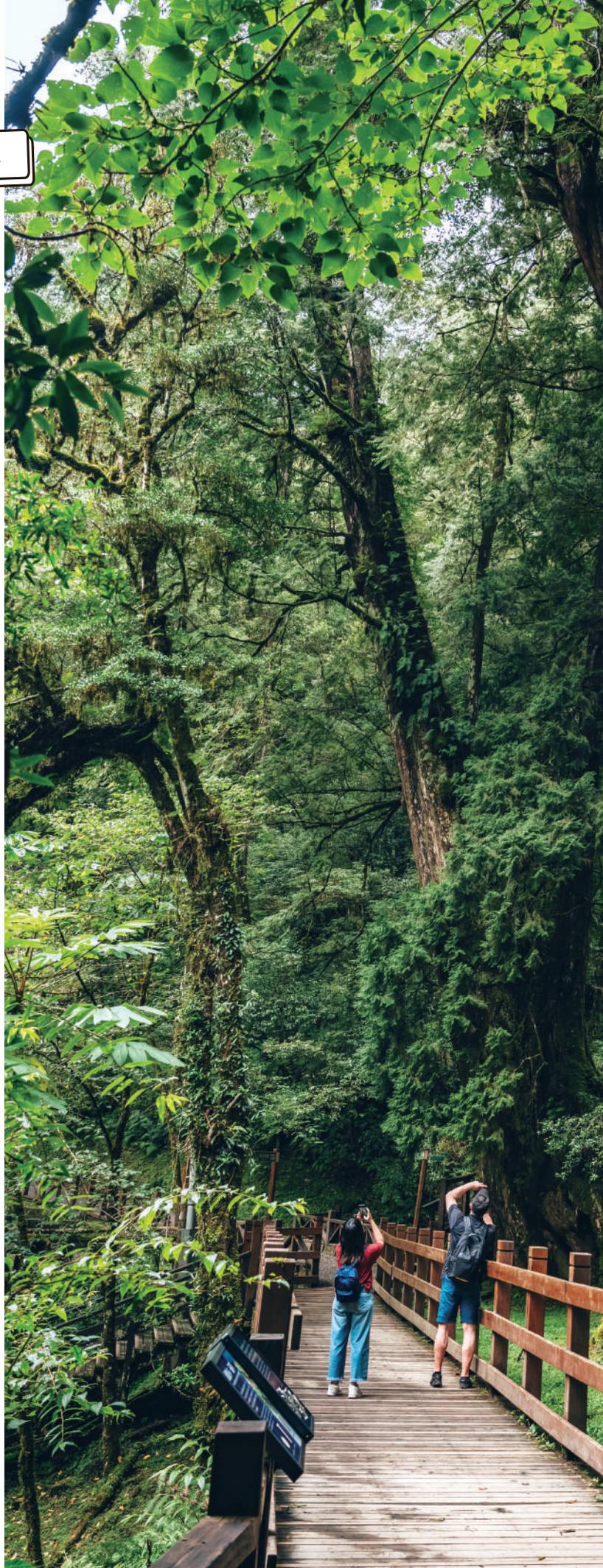
하이킹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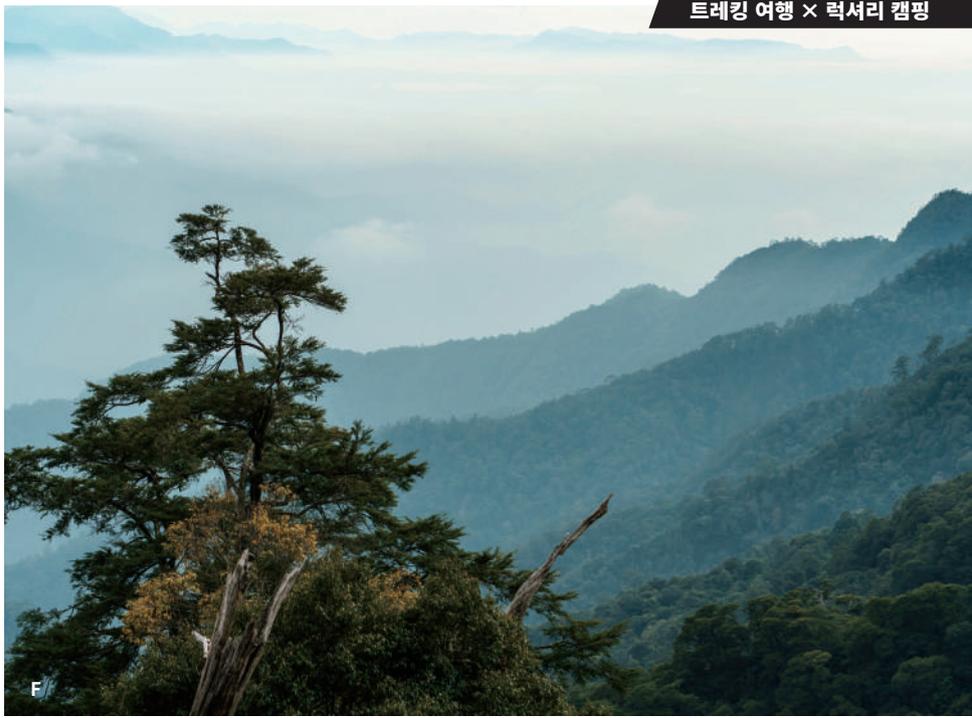
숲에서의 시간여행

타이완은 산과 숲이 많아 광활한 삼림과 풍부한 원시림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섬 깊은 곳의 산과 숲에는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된 거대한 나무들이 많다. 그들은 마치 산신이 지키고 있는 듯 산 속에 우뚝 솟아 있어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신목'이라고 부른다. 타이완 전역에는 잘 계획된 트레일이 있으며, 그곳에서 신목들을 가까이서 감상하고 자연의 웅장함과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D 숲을 따라 늘어진 나무그늘과 공기가 시원해서 여름에 와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E 거목들이 모여있는 곳에 도착하면 언덕 위에 웅장한 노송나무들을 볼 수 있고 수령이 가장 많은 것은 천 년이 넘었다. F 휴양구에 위치한 따쉬에산 트레일은 해발 2,000미터 이상의 높은 고도에 있어 여름 더위를 피해 삼림욕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D 라라산 신목군락 트레일 가장 친화적인 삼림욕 체험

타오위안시 푸싱구에 위치한 라라산 신목군락지는 타이완에서 ‘입구까지 차를 몰고 간 뒤, 걸어서 신목 세계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이다. 공원의 산책로는 평평하고 걷기에 편리하다. 이 산책로는 약 3km 길이로, 원형으로 조성되어 있어 모든 연령대의 여행객이 천천히 산책하기에 적합하다. 이 신목림에는 천 년 이상 된 노송나무가 20 그루 이상 있다. 키가 큰 나무는 하늘높이 솟아 있고 줄기가 서로 얽혀 있다. 어떤 나무기둥은 곧게 뻗은 반면, 어떤 나무기둥은 기울어져 얽혀 있는 모습이 자연 조각품을 보는 듯 하다. 숲을 따라 늘어선 나무그늘과 공기가 시원해서 여름에 와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E 스마쿠스 거목군락 트레일 깊은 산 속에 펼쳐진 별천지

타이완에서 어느 신목 트레킹코스가 모험적인지 묻는다면, 스마쿠스를 떠올릴 것이다. 신주현 젠스향 타이야족이 사는 이 비밀스러운 장소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차로 2~3 시간 가야 도착할 수 있지만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원시의 순수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있다. 부락에서 출발하여 거대한 나무까지 왕복하는 데 거리가 약 10km 이다. 이 트레일은 계곡과 숲을 지나며 고산 원시림의 품에 안기게 된다. 거대한 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하면 언덕 위에 웅장한 노송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령이 가장 많은 것은 천 년이 넘었고 큼지막한 나무를 보고 있자면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F 따쉬에산 신목트레일 천 년의 산림 수호자

따쉬에산 신목트레일은 타이중 허핑구의 따쉬에산 삼림 휴양구에 위치하며 해발 2,000 미터 이상의 높은 고도에 있어 여름 더위를 피해 삼림욕을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다. 트레일의 왕복 소요 시간은 약 1.5~2 시간 정도이며 길이 완만하여 걷기 편안하다. 트레일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숲은 새들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하여 타이완에서 유명한 조류 관찰 장소이기도 하다. 트레일 끝에는 1,400 년 된 붉은 편백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약 50m 에 달해 장엄한 자태를 뽐낸다.



하이킹 코스

숲에서 온천으로 힐링시간



숲을 걷고, 산길을 지나고, 정상에 올라 경치를 즐긴 후, 근처 온천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많은 여행객들이 생각하는 힐링의 여정이다. 타이완에서는 이 조합을 이루는 게 어렵지 않다. 타이완은 온천 자원이 풍부하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산에서 해안까지, 다양한 온천이 있어 올바른 산책로와 코스를 선택하면 휴식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G 샤오라이 트레일

두 개의 현수교로 이어진 산골짜기와 온천

타이중의 구관 지역은 이미 온천으로 유명하며, 샤오라이 트레일은 이 산림을 탐험하는 데 더 많은 재미를 더해준다. 이 트레일은 구관 현수교와 샤오라이 현수교를 연결하며 양끝에는 등산로 입구가 있다. 구관 현수교에서 입장하여 숲을 지나 샤오라이 현수교에 도착하여 웅장한 따자곡을 조망할 수 있는 코스를 추천한다. 현수교 출구는 무료 족욕장이 있는 구관온천공원에 인접해 있다. 하이킹을 한 후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굵어진 산과 쏟아지는 시원한 냇물을 바라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휴식 방식일 것이다.

H 유황곡 트레일

뜨거운 열기와 화산경관에 비바자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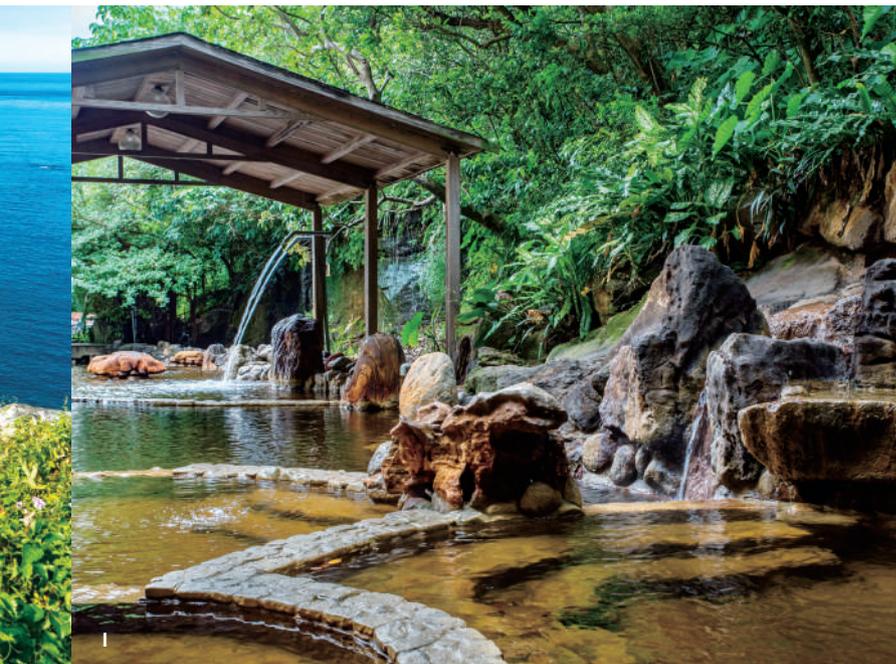
양밍산 국립공원의 유황곡은 타이완 북부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화산 지열지대이다. 잘 계획된 테크길을 걷다 보면 연기를 뿜어내는 구멍, 유황 결정, 노출된 암석 지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며 화산 지질의 아름다움이 발밑에 펼쳐진다. 길지 않은 길이라 가볍게 걷기에 좋다. 길을 따라 무료 온천 족욕탕도 있는데 발바닥을 통해 천천히 온몸으로 따뜻함이 전해진다. 온천을 더욱 즐기고 싶다면 근처의 사마오산 온천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괜찮다. 이곳은 고품질의 온천 시설과 지역의 풍미와 독창적인 요리로도 유명하다.

I 사자머리산 트레일

산과 바다의 풍경을 한번에

산과 바다를 결합한 하이킹을 경험하고 싶다면 무조건 신베이시 진산에 있는 사자머리산 트레일이다. 이 길은 북쪽 해안을 따라 뻗어 있으며, 한쪽에는 푸른 나무가 무성하고 다른 한쪽에는 멋진 해안 풍경이 펼쳐진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에서 유명한 해안 암석 지형인 ‘쌍둥이 촛대바위섬’을 볼 수 있다.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트레킹코스다. 여행 후에는 사자머리산 공원에서 인근 대중목욕탕이나 온천 호텔까지 걸어가서 진산온천 ‘철천’의 독특한 온천 수질을 체험하면서 여행 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해보자.

G 현수교 출구는 무료 족욕장이 있는 구관온천공원에 인접해 있고, 하이킹을 한 후 온천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휴식 방식일 것이다. H 테크길을 걷다 보면 연기를 뿜어내는 구멍, 유황 결정, 노출된 암석 지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I 트레일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에서 유명한 해안 암석 지형인 ‘쌍둥이 촛대바위섬’을 볼 수 있다.





글램핑

숲속에서의 
하룻밤 여행 

최근 몇 년 사이 캠핑은 단순한 야외 활동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자 새로운 여행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텐트부터 식사까지 완벽하게 제공되는 글램핑 (Glamping) 붐이 불면서, 복잡한 캠핑 장비 준비 없이도 이제는 산과 숲 어디에서나 온수로 샤워하고 맛있는 음식과 멋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안락함이 공존하는 캠핑 체험이 가능해졌다.



A-1



A-2

A-1 지름에 위치한 라포포 빌리지는 난동 협곡에 산책 가이드 투어 및 자연 관찰 활동 등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A-2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A 텐트 구역은 사방이 푸르른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한다. B 모든 구형 텐트에는 독립된 잔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파라솔, 간이 주방 등이 갖춰져 있어 아늑한 야외 생활 공간을 연출한다. B-1 별자리에서 이름을 딴 모든 구형 텐트는 독립된 공간이다. B-2 어둠이 내리면 멀리 반짝이는 불빛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다.

A LAPOPO village

협곡에 숨겨진 빛의 빌리지

지룽 시내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난난구(暖暖區)의 난동협곡(暖東峽谷)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라포포 빌리지(LAPOPO Village)은 도시 근교에서 자연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텐트 구역은 사방이 푸르른 숲에 둘러싸여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람쥐, 야기사슴 등이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마을에는 산책로 가이드 투어 및 자연 관찰 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특히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여행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글램핑 텐트 뒤편에는 개별 욕실이 마련되어 있으며 텐트 내부는 넓고 쾌적하다. 밤이 되어 불이 켜지면 전체 캠핑장은 따스한 빛이 반짝이는 작은 마을이 된다. 숙박은 1박 3식의 패키지로 구성되며 애프터눈 티, BBQ 석식에서부터 조식까지 풍성하게 제공된다. 밤은 라포포 빌리지의 매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간으로 텐트 사이사이에 불빛이 켜지면 잠시 밖으로 나와 산책하며 숲의 고요함과 포근함을 느껴보자.

B GUI PU GLAMPING

아리산 자락에서 바라보는 반짝이는 밤하늘

자이현 판루향(番路鄉), 아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이푸 글램핑(歸樸森活, GUI PU GLAMPING)은 도시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숲속 글램핑장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거치지 않고 자이 시내에서 차로 30분이면 도착 가능하다. 해 질 무렵이면 계곡 전체가 주황빛 노을로 물들며 어둠이 내리면 멀리 반짝이는 불빛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어 고요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별자리에서 이름을 딴 모든 구형 텐트에는 독립된 잔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파라솔, 바비큐 그릴, 간이 주방 등이 갖춰져 있어 아늑한 야외 생활 공간을 연출한다. 글램핑장에서는 애프터눈 티와 조식을 포함한 1박 2식을 제공하며 바비큐나 휘귀를 즐기고 싶다면 사전 예약을 통해 한결 여유로운 준비가 가능하다. 오후에는 텐트 앞에 앉아 조용히 하늘의 구름과 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밤이 되면 잔디에 누워 벌레 울음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빛과 교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원모임으로 느끼는 해변

글램핑

술술 부는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해변 글램핑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완은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해변들이 곳곳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 하룻밤 묵는 일정의 바다 여행을 부담 없이 떠나고 싶다면, 아래 두 곳의 글램핑장을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C-1



C O'GLAMPING 국가공원 안에서 즐기는 캠핑

오 글램핑 컨딩 마오비터우 캠핑장원 (墾丁貓鼻頭露營莊園, O'GLAMPING)은 타이완 최남단의 컨딩 국가공원 (墾丁國家公園)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마오비터우 공원 (貓鼻頭公園)과 웅장한 해안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바다 풍경과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자랑하는 이곳에서는 진한 남국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 4헥타르 규모의 글램핑장 내부에는 빌라형 텐트, 캠핑카 전용 구역, 자유 캠핑 구역 등 6가지 유형의 캠핑존이 마련되어 있어 커플 여행이든 가족 모임이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설계된 조명 시스템 덕분에 글램핑장은 밤에도 빛공해가 거의 없어 남십자성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 꼽힌다. 야외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스노클링, SUP, 조간대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글램핑장에는 타이완 최초의 림주를 테마로 한 술집과 식당이 마련되어 있어 직접 요리를 하거나 간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 테마존도 자리하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컨딩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눈부신 바다는 완벽한 힐링을 선사한다.

D Nayang Beach

습지와 바다 사이의 야생에서 즐기는 캠핑!

타이중 다안 해변 공원 (台中大安濱海樂園)에 위치한 상하이 나양 (向海那漾, Nayang Beach)은 타이완 최초의 해변 글램핑 구역으로, 가오메이 습지 (高美濕地)가 근처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변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아름다운 일몰과 변화무쌍한 조류의 흐름도 감상할 수 있다. 텐트에는 각각 독립된 욕실 공간을 비롯해 전용 야외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 꽃을 피우고 밤이 되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 수 있어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버블 축구, 양궁, 물놀이장을 비롯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DIY 체험, 잔디 요가, 주말 Live 공연 등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모래조각 만들기, 생태 탐방, 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근처에 있는 맹그로브숲 생태 보호구역과 다자 전란궁 (大甲鎮瀾宮)을 방문할 수도 있다. 1박 3식 패키지를 선택하면 낮에는 마음껏 놀고, 밤에는 맛있는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단연 타이완 중부 지역에서 바다와 자연의 정취를 가장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지이다.



D-1



D-1

C 캠핑카 전용 캠핑 구역도 마련되어 있으며 야외 액티비티에 참여할 수 있다. C-1 햇빛이 내리쬐는 컨딩에서 눈부신 바다는 완벽한 힐링을 선사하고 진한 남국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다. D 해변 공원에 위치한 상하이 나양은 타이완 최초의 해변 글램핑 구역이다. D-1 이곳에서는 버블 축구, 양궁, 물놀이장을 비롯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DIY 체험, 잔디 요가, 주말 Live 공연 등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레저 감성을 담은 글램핑,

호텔 수준의 프리미엄 야영

글램핑이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호텔업계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합류하고 있다. 일부 호텔에서는 객실에 텐트 또는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재현하여 캠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호텔에서는 넓은 대지에 전용 캠핑장을 만들고, 호텔의 하드웨어 시설과 전문 서비스를 결합하여 캠핑을 더욱 편안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 로아터 자오시 캠핑카 온천호텔 속 자연 힐링 공간

이러 자오시에 위치한 호텔 로아터 자오시 (礁溪老爺酒店)는 타이완 최초로 호텔에 캠핑카 숙박을 도입한 선구자 중 하나로 호텔 본관 옆 우펑치 숲 (五峰旗山林)에는 20대의 캠핑카가 설치된 더티안 캠핑 체험공간 (得天露營體驗區, Sky Park Campsite)이 조성되어 있다. 각각의 캠핑카는 전문가팀이 맞춤 설계한 시설로 독립된 욕실, 세면대, 에어컨, 미니 냉장고, 옷장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야외에는 전용 타프와 잔디석 등이 마련되어 있어 소형 스위트룸 수준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모닥불 옆, 별빛 아래에서 전담 버틀러가 즉석에서 구워주는 BBQ를 즐기는 밤 시간은 이곳의 최고 하이라이트이다. 캠핑카 숙박객들은 호텔 본관에 있는 인피니티 풀, 온천탕, 키즈룸 및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야외 캠핑 중에도 호텔의 쾌적함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이곳은 자오시 지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글램핑'의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



E-1



E-2



F-1



F-2

F Bon chill

골프장 옆 올인클루시브 캠핑의 신세계

코스모스 호텔 & 리조트 그룹에서 선보인 펑취 글램핑 (朋趣, Bon Chill Glamping)은 타이완 룽탄 골프장 (桃園龍潭高爾夫球場) 옆, 그룹 산하의 타이완 위화 호텔 & 골프 클럽 (桃園悅華大飯店)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럭셔리 캠핑 브랜드로 브랜드명은 타이완어로 '다람쥐'를 뜻하는 phòng-tshí에서 따왔으며, 자연 생태와 호텔 서비스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곳의 캠핑카는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애프터눈 티, 석식, 야식에서부터 조식까지 포함된 1박 4식의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를 비롯해 전담 버틀러 서비스도 제공한다. 글램핑장 내부에는 야외 수영장, 풀사이드 바, 별빛 야외 영화관, 어린이 전동차 체험장, VR 골프장, 양궁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업체에서는 숙박과 골프 라운딩을 결합한 골프 여행 숙박 패키지를 출시하여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E-1 호텔 로아터 자오시 본관 옆 우펑치 숲에는 캠핑카가 설치되어 있어 소형 스위트룸 수준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E-2** 캠핑카 숙박객들은 호텔 본관에 있는 온천탕, 키즈룸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F-1** 캠핑카는 모던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1박 4식도 제공한다. **F-2** 글램핑장 내부에는 야외 영화관, 어린이 전동차 체험장, VR 골프장 등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마련 되어 있다.

숲속으로 힐링여행



Glamping Sites

- **라포포 빌리지 LAPOPO Village**
(拉波波村 LAPOPO Village)

Add 지룽시 난남구 동스제 221 호 (난동협곡 옆)
(基隆市暖暖區東勢街 221 號 (暖東峽谷旁))

Web www.lapopo.com.tw
- **구이푸 글램핑 GUI PU GLAMPING**
(歸樸森活 GUI PU GLAMPING)

Add 자이현 판루향 샤펬터우푸 7 린 69 호
(嘉義縣番路鄉下石頭埔 7 鄰 69 號)

Web www.guipuglamping.com
- **상하이냐양 Nayang Beach**
(向海那漾 Nayang Beach)

Add 타이중시 다안구 베이산로 86 항 1 호
(台中市大安區北汕路 86 巷 1 號)

Web www.nayangbeach.com.tw
- **컨딩 마오비터우 캠핑장원 O'GLAMPING**
(墾丁貓鼻頭露營莊園 O'GLAMPING)

Add 핑둥현 형춘진 사첸로 90 호
(屏東縣恆春鎮下泉路 90 號)

Web www.oglamping.com
- **더티안 캠핑 체험공간 Sky Park Campsite**
(得天露營體驗區 Sky Park Campsite)

Add 이란현 자오시향 우펑로 69 호 (호텔 로얄 자오시)
(宜蘭縣礁溪鄉五峰路 69 號 (礁溪老爺酒店))

Web www.hotelroyal.com.tw/ko-kr/chiaohsi
- **핑취 Bon Chill Glamping**
(朋趣 Bon Chill Glamping)

Add 타오위안시 룡탄구 위예화로 100 호
(타오위안 위예화 호텔 & 골프클럽)
(桃園市龍潭區悅華路 100 號)
(桃園高爾夫俱樂部 & 悅華大酒店))

Web www.bonchillglamping.com.tw

- 캠핑장
- 트레일
- 트레일

O'GLAMPING
컨딩 마오비터우 캠핑장원

여행 팀 / 교통편



도시 탈출!
근교 트레일 추천

타이베이

타이베이 중심부에서 **진미엔산 트레일**과 **군함암 트레일**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MRT를 타고 시후역으로 이동한 후, 등산로까지 도보로 이동하면 되고, 돌아가는 길에 MRT역 옆에 있는 시후시장에 들러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군함암은 MRT를 타고 치리안(唹哩岸)역에서 내리면 된다. 등산로 입구는 양명교통 대학교 내에 있으며 캠퍼스 안 카페에서 타이완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어 방문할 가치가 있다. 베이더우에 위치한 **유황곡 트레일**은 MRT 베이더우역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으며 돌아오는 길에는 MRT역 근처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베이더우 시장을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신베이

신베이시 진산에 있는 **사자머리산 트레일**은 타이베이에서 직접 여객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MRT 단수지역으로 이동한 후 타이완 하오싱 '716 황관베이안선'으로 갈아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후자의 장점은 도중에 바이사완(白沙灣)과 주밍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책 후에는 진산 라오지에 가서 유명한 오리고기를 맛보고 현지 특산품인 고구마 기념품을 구매해 보자.

북부해안 및 관음산 국가풍경구 (北海岸及觀音山國家風景區)

Web www.northguan-nsa.gov.tw

신주

신주의 **스마쿠스 거목군락 트레일**은 산속 깊은 곳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거나 셔틀버스를 예약하거나 혹은 여행자의 패키지 투어로 갈 수 있다. 이곳의 부족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가장 원시적이고 웅장한 신목 비경으로 들어가 부족의 원주민 문화와 전통 풍미를 체험하고, 고요한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

스마쿠스 부족 (司馬庫斯部落) Web smangus.org

타이중

대만 중부에 있는 **타이중 따경 트레일** (2번 트레일)은 시내에서 차나 승용차로 갈 수 있으며, 등산로는 주차장 바로 옆에 있지만 휴일에는 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타이중의 다른 두 트레일은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구관으로 가는 **샤오라이 트레일**로 가려면 고속철도 타이중역 혹은 타이완철도 타이중역에서 구관으로 가는 여객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구관에는 온천 호텔이 많아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도 추천한다. **따쉬에산 신목트레일**은 버스를 대절하거나 직접 운전하는 것을 추천하며 타이중에서 이곳으로 가는 길에 스강댐, 툰니우 객가문화관, 동스임업문화원구 등을 지나게 된다.

산산국가풍경구 (샤오라이트레일) (參山國家風景區 (稍來步道))

Web www.trimt-nsa.gov.tw

따쉬에산국가삼림유락구 (大雪山國家森林遊樂區)

Web pse.is/7sjszg



타오위안

타오위안에 도착하면 타오위안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라라산 신목군락 트레일**로 갈 수 있지만 직접 운전하거나 단체라면 버스를 대절하는 방법, 혹은 여행사의 일일투어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라라산으로 가는 길에 따시라오제, 따시 옛 차공장, 샤오우라이 산책로 등 가볼 만한 관광지가 많다.

라라산 국가삼림유락구 (拉拉山國家森林遊樂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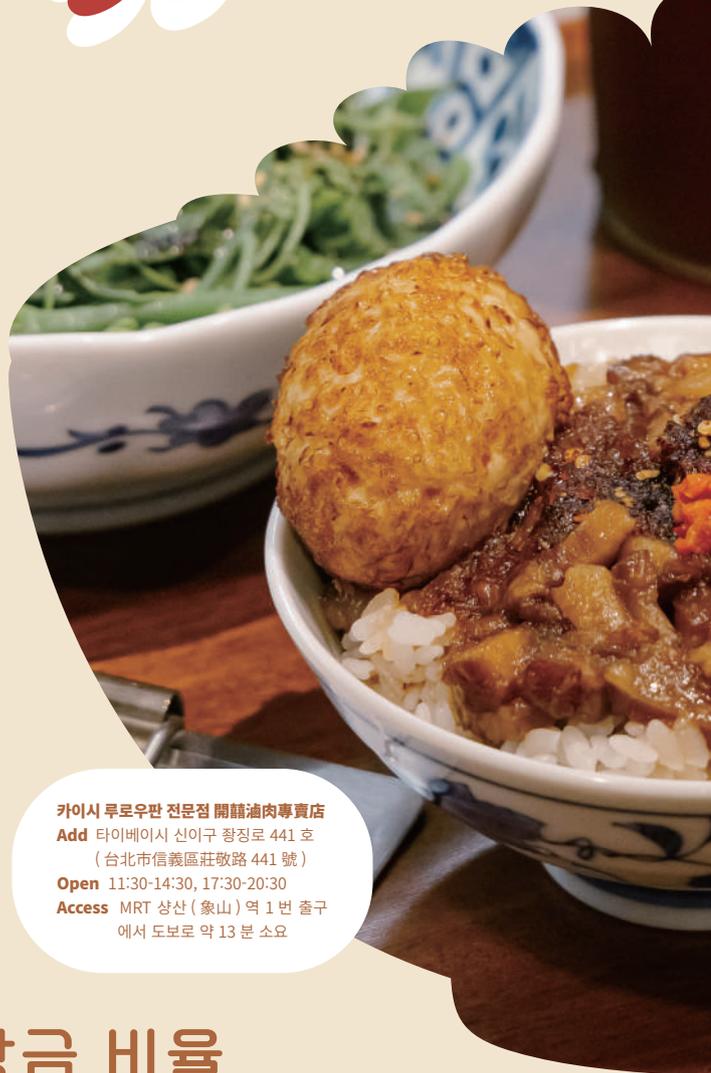
Web pse.is/7shvw4



쌀밥 한 그릇으로 알아보는 타이완의 맛

타이완에서 쌀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추억의 시작점이다. 집에서 만든 세 가지 요리와 국으로 이루어진 가정식부터 간식까지, 쌀밥은 언제나 식탁의 주인공이자 타이완인이 가장 친숙한 맛이다. 다양한 지역과 관습은 타이완의 쌀밥 요리를 다양하게 발전시켜 풍부한 개성과 지역 특색을 보여준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해 타이완 서민 식탁의 맛을 재발견해보자.

밥 맛으러



카이시 루로우판 전문점 開禧滷肉專賣店
Add 타이베이시 신이구 좡징로 441 호
 (台北市信義區莊敬路 441 號)
Open 11:30-14:30, 17:30-20:30
Access MRT 상산(象山)역 1번 출구
 에서 도보로 약 13 분 소요



영혼 소스, 밥 한 그릇의 황금 비율

타이완의 쌀밥 요리에서 루로우판(滷肉飯)은 서민 생활을 가장 잘 대변하는 대표 메뉴다. 뜨거운 흰밥 위에 소스, 고기 조림을 얹은 간단하지만 풍미 가득한 맛은 누구나 어릴 적부터 먹어온 친숙한 맛이다. 짭조름한 루로우판, 상큼달콤한 닭고기밥, 바다 향이 물씬 나는 새우밥까지, 평범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별미다.

타이베이시 신이구에 문을 연 카이시 루로우판 전문점은 각계각층의 극찬을 받는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올랐다. 루로우판은 선명한 붉은 색 소스, 풍부한 기름진과 젤라틴, 진한 돼지기름 향이 어우러져 부

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매콤한 음식을 좋아한다면 이곳의 마라루로우판(麻辣滷肉飯)을 추천한다. 특제 소스는 고소하고 매콤해서 중독될 수밖에 없다.

신베이시 신톈구에 있는 신톈 자이닭고기밥에서 유명한 자이닭고기밥을 맛볼 수 있다. 자이닭고기밥의 특징은 칠면조 고기를 재료로 사용하여 부드럽고 톱텃하지 않으며 느끼하지 않는 담백한 맛이다. 닭기름과 파향이 가득한 양념과 어우러져 짭짤하고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남부 타이완의 현지 풍미를 맛 볼 수 있다.

오세요!

신덴 자이닭고기밥 新店嘉義雞肉飯

Add 신베이시 신덴구 젠궈로 238 호 (新北市新店區建國路 238 號)

Open 11:00-14:00, 17:00-20:00, 토요일 휴무

Access MRT 다핑린 (大坪林) 역 1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6 분 소요



嘉義雞肉飯
歡迎外帶
各式雞肉飯
風味小吃
歡迎外帶
TEL:29126388



중칭상항 忠青商行

Add 타이베이시 중정구 칭다오동로 6-1 호
(台北市中正區青島東路 6-1 號)

Open 11:00-20:30

Access MRT 산다오사 (善導寺) 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 분 소요

타이베이시 중정구에 위치한 중칭상항에서는 타이난의 정통 새우밥을 맛볼 수 있다. 이 요리는 타이완의 전통 해물밥으로 백 년째 길거리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곳의 새우밥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지만 맛은 정평이 나 있으며 타이베이 최고의 새우밥으로 손꼽힌다. 통통하고 달콤한 새우, 진한 특제 소스, 그리고 반숙 계란은 한 입 먹을 때마다 만족감을 더한다.

짭짤하고 향긋한 고기 에너지 넘치는 도시락의 주인공



흑전식당 우안지점 黑殿飯店 右岸店

Add 신베이시 단수이구 중정로 11-10 호 (新北市淡水區中正路 11-10 號)

Open 11:00-20:30

Access MRT 단수이 (淡水) 역 1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4 분 소요

라오파이장 돼지족발 덮밥 老牌張豬腳飯

Add 타이베이시 다통구 민주서로 296 호 (台北市大同區民族西路 296 號)

Open 11:00-20:30, 월요일 휴무

Access MRT 다차오토우 (大橋頭) 역 3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 분 소요





황지루로우판 黃記魯肉飯

Add 타이베이시 중산구 중산북로 2단 183항 28호 (台北市中山區中山北路二段183巷28號)

Open 11:30-20:20, 월요일 및 목요일 휴무

Access MRT 중산초등학교 (中山國小) 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4분 소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큼직한 고기와 밥은 포만감과 만족감을 상징하는 음식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돼지갈비, 족발, 콩로우(조림 돼지고기) 등 도시락의 단골 메뉴로 푸짐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점심과 저녁 메뉴로 손꼽힌다. ‘고소하게 조리고, 바삭하게 튀기고, 부드럽게 찌낸다’는 것이 이 도시락의 특성이다. 흰쌀밥은 언제나 최고의 조연으로 고기의 향을 한입 가득 담아낸다.

신베이시 강 하구 있는 단수이는 관광지로서 맛있는 음식들이 모여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줄을 서서 맛보는 흑전식당은 돼지갈비밥으로 유명하다. 노점에서 시작해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가게로 학창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먹어온 익숙한 맛이다. 돼지갈비는 먼저 튀긴 후 조리해서 육질이 두툼하고 쫄깃한 식감에 씹을 때마다 조린 소스의 기름진 단맛과 짠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으며 씹을수록 더욱 고소해진다. 돼지갈비 외에도 백반 위에는 건두부와 소금에 절인 배추가 듬뿍 얹어져 밥 안주에 좋은 조연이다.

타이베이시 다둥구 민주서로(民族西路)에 있는 라오파이장 돼지족발 덮밥은 많은 시민들에게 타이베이 최고의 돼지족발 덮밥으로 극찬을 받고 있다. 타이완 사람들의 돼지족발 조리법은 한국과 다른데, 돼지족발을 입에서 녹을 정도로 푹 삶는다. 또한 허벅지살(腿庫), 정강이살(中段), 발굽 부분(腳蹄)으로 나뉘어 판매되며 각 부위마다 선호하는 애호가들이 있다. 라오파이장은 돼지족발 윤기 있게 쪄내고 돼지 껍데기는 탄력이 살아져 씹는 순간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짭짤하고 달콤한 양념장을 밥 위에 뿌려 먹으면 멈출수 없다.

콩로우판(爌肉飯/焢肉飯, 돼지고기밥)은 삼겹살을 큼직하게 썰어 간장, 설탕, 향신료와 함께 푹 졸여 만든 것으로 한 입 베어 물면 살코기와 지방의 조화로운 맛을 느낄 수 있다. 황지 루로우판은 2025년 미술랭 밥 구르망에 선정된 맛집으로 식사 시간이 되면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다. 이 가게는 적당한 비계와 살코기 삼겹살을 사용하여, 잡곡밥에 두부조림, 계란조림, 그리고 반찬을 곁들여 가장 정통적이고 만족스러운 타이완식 점심을 제공한다.



찰쌀밥의 무한한 변신

거리의 음식이자 명절의 별미

일반적인 쌀밥, 현미밥보다 훨씬 찰지고 쫄득한 식감을 자랑하는 찰쌀밥은 단오절에 먹는 러우종(肉粽,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사용한 종즈), 야시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통즈미가오(筒仔米糕), 아기의 생후 한 달을 기념해 가족, 지인들에게 주는 선물 세트 속 요우판(油飯)에 이르기까지 모두 타이완 사람들의 소중한 삶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음식이다. 게다가 찰쌀 음식은 지역과 민족에 따라 요리법과 맛도 달라, 타이완 쌀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하다.

타이완의 종즈는 지역에 따라 맛과 식감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크게 북부식 종즈와 남부식 종즈로 나뉜다. 북부식 종즈는 볶은 찰쌀을 연잎 등에 싸서 찌낸 것으로 밥알의 고슬고슬한 식감이 고스란히 살아있다. 반면 남부식 종즈는 생찰쌀을 그대로 종즈 앞에 싸서 삶는 방식으로 조리되어 촉촉하고 쫄득쫄득한 찰쌀 본연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타이베이시 바더로(八德路)에 위치한 왕지푸청 러우종은 남부식 종즈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 맛집으로 종즈 속에 삼겹살, 표고버섯, 밤, 땅콩, 달걀노른자와 건새우 등을 듬뿍 담아 한 입 먹을 때마다 다양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이곳의 남부식 종즈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테이블 위에 놓인 땅콩가루를 살짝 뿌려 먹어보자. 그 풍미가 한층 더 깊고 풍성해진다.

타이베이시 다통구 옌핑북로에 위치한 따차오터우 라오파이 통자이미가오에서는 정통 찰쌀 요리의 또 다른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타이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미가오가 있는데 하나는 타이난 미가오, 다른 하나는 통자이미가오이다. 타이난 미가오는 찰쌀을 찌 뒤 그 위에 러우차오(肉燥) 등의 재료를 올리는데 반해, 통자이미가오는 찰쌀과 각종 재료들을 원통형 용기에 함께 넣어 찌 뒤 접시에 얹어 담고 가장 마지막에 소스를 뿌린다. MRT 다차오터우(大橋頭)역 근처에 위치한 이 노포는 50년 넘게 미가오를 판매해오고 있으며, 2025년도 포함하여 수년간 연속으로 미쉐린 밥구르망에 선정된 곳으로 항상 손님들로 북적인다. 주문 시 비겟살 또는 살코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테이블에 비치된 특제 소스는 이곳 미가오의 핵심 포인트이니 함께 곁들여 먹어보자.

요우판(油飯)은 타이완의 전통 쌀 요리로 찌낸 찰쌀에 볶아 향을 낸 각종 재료들을 골고루 섞어 만든다. 타이완에는 아기가 태어나 한 달이 되면 기쁨을 나누는 의미에서 가족, 지인들에게 요우판을 선물하는 전통적인 풍습이 있다. 타이베이 디화제(迪化街)에 위치한 린허파 요우판텐은 1894년에 문을 연, 백 년이 넘는 역사의 노포로 유명하다. 이곳의 요우판은 찌 장립 찰쌀밥에 참기름을 고루 섞고 간장에 절인 버섯, 건새우, 살코기 등을 넣어 만든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곳의 요우판을 즐기고 싶다면 달걀 장조림인 루단(滷蛋)과 닭다리를 꼭 곁들여 먹도록 하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위치한 만큼 매장에는 외국어 메뉴판이 잘 준비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주문이 가능하다.



땅콩가루를 살짝 뿌린 남부식 종즈



땅콩과 찰쌀만 있는 채식 차이종(菜粽)





왕지푸청러우퉁 王記府城肉粽

Add 타이베이시 송산구 바더로 2 단 374 호 (台北市松山區八德路二段 374 號)

Open 10:00-23:00

Access MRT 난징푸싱 (南京復興) 역 5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8 분 소요



미끼오 위에 특제 소스랑 곁들여 먹자!

따차오터우 라오파이 통자미미가오 大橋頭老牌筒仔米糕

Add 타이베이시 다통구 옌핑북로 3 단 41 호 (台北市大同區延平北路三段 41 號)

Open 07:00-16:00, 매주 화요일 휴무

Access MRT 다차오터우 (大橋頭) 역 1A 출구에서 도보로 약 4 분 소요



땀겨울 같이 먹는 전통적인 요우판

린허파 요우판덴 林合發油飯店

Add 타이베이시 다통구 디화제 1 단 21 호 (台北市大同區迪化街一段 21 號)

Open 07:00-13:00, 매주 월요일 휴무

Access MRT 베이먼 (北門) 역 2 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0 분 소요





‘타이완에서 한 잔 하세요’ 시리즈

와이너리 여행편

※ 미성년자 음주금지.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
생률을 높입니다.



'타이완에서 한 잔 하세요' 시리즈

차, 술, 커피 - 최근 몇 년 동안 타이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차, 술, 커피는 이 땅의 풍부한 농산물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목적이 되었다. 이번 호는 '타이완에서 한 잔 하세요' 시리즈의 네 번째 편의 주인공은 바로 타이완의 술이다. 타이완 각 생산지에서, 살짝 취한 듯한 여정을 통해 오감으로 타이완의 풍습과 사람들을 느껴 보자. 양조장을 방문하여 양조 과정 하나하나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산과 물, 그리고 타이완 문화와 이야기에 더욱 깊이 다가갈 수 있다.

Wine
Sake
Whisky



글 / 장지린 (張芷菱)
사진 / 각 가게 제공

다양한 지형과 변화무쌍한 기후의 타이완에서는 습하고 더운 공기와 비옥한 토양이 만나 타이완 술이 탄생하게 되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평원, 산지까지, 각 지역의 술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이완 술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햇살이 쏟아지는 포도 덩굴 아래에서 진한 과일 향기가 사람을 황홀하게 하고, 안개가 자욱한 아침에는 쌀과 아침 이슬이 만나 땅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들판에서는 풍성한 벼 이삭이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져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낸다. 맑은

물이 흐르는 산기슭에서는 술명인이 빚어낸 아열대 호박색 와인 향이 술맛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타이완의 와인너리에 가면 다양한 타이완산 술 시음과 더불어, 술 제조 과정과 타이완 술 문화, 전통을 배울 수 있다. 직접 시음해 보면, 타이완 술의 독특한 풍미를 느끼고, 이 땅의 술 제조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슈성 푸타오 와인

아열대 특색의 깔끔한 맛을 가진 세계적인 와인



슈성 레저 와이너리 樹生休閒酒莊

Add 타이중시 와이푸구 웨이토투 2로 8호 (台中市外埔區水頭二路8號)

Open 평일 09:30-17:00, 주말 09:00-17:30, 화요일 휴무



와인을 만드는 과정은 그 지역의 정수를 추출하는 것과 같다. 타이중 허우리 산지(后里山)에 위치한 슈성 와이너리는 타이완에서 50년 된 포도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와이너리다. 슈성에서 만든 와인은 포도의 옛 이름인 푸타오(埔桃)에서 이름을 따서 푸타오주라고 불린다. 푸타오주의 양조 방식은 타이완 기후 조건과 유사한 포르투갈 마데이라 와인을 참고한 것이다. 브랜디를 첨가하여 알코올 도수를 높여 발효를 멈추게 하고 와인 본연의 단맛을 최대한 끌어낸다. 타이완의 늦여름 태풍을 피하기 위해 포도를 일찍 수확하여 숙성한 후 약간의 산미가 열대 기후 레드 와인의 흔한 단맛을 중화시켜 주므로 애플타이저나 식후주로 추천한다.

슈성 레저 와이너리의 일일 가이드 투어에서는 전문 가이드가 와이너리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숙성 중인 오크통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마지막에는 시음도 할 수 있다. 수제간식과 함께 마시는 금메달 레드와 화이트 와인의 풍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또한, 따뜻한 와인(뱅쇼) 향신료 패키지 체험도 있어 현장에서 자신만의 따뜻한 와인을 끓여내어 이 약간 취한 여정에 매력적인 향기를 더한다.



푸타오주는 포도의 중국어 발음과 비슷한 포도의 옛 이름인 푸타오(埔桃)에서 이름을 따서 푸타오주라고 불린다.



우평 긴조 사케. 쇼추

현지의 쌀로 빚고 천연 발효로 담가만든 본연의 맛



좋은 술을 음미하는 것은 술의 고유한 풍미를 경험하는데 있다. 타이중 우평 농회 양조장에서 생산되는 추우 긴조(初霧吟釀)와 추우 쇼추(初霧燒酎)는 모두 우평의 타이농 71호 쌀로 정성스럽게 빚어진 술로, 발효 과정 중에 주정을 전혀 첨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긴조 사케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전분 특유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천연 젖산의 감미로운 향과 은은한 곡물 발효 내음이 느껴진다. 냉장 보관 후 마시면, 쌀향 대신 단맛과 산미가 한층 더 도드라진다. 긴조와 달리 쇼추는 가압 진공 증류법으로 제조되어 쇼추 고유의 풍미를 그대로 간직하며, 가압 상태에서 저온 증류 시 기포가 발생하는 데, 이는 쇼추만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쇼추는 긴조보다 높은 알코올 도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원액 그대로 마셔도 알코올감이 거의 없으며, 기포의 자극적인 감촉 속에서 쌀의 향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우평 농회 양조장 방문 시, 양조장 내 전문 도슨트 투어에 참여할 경우 우평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술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매실주 DIY 클래스에서는 양조장에서 재배한 매실로 직접 매실주도 담가볼 수 있다. 완성된 매실주는 애프터눈 티와 함께 즐긴 후 집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양조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현지 술은 물론 잘 알려진 우평의 타이농 71호 쌀과 다양하고 풍성한 우평 특산품들도 판매하고 있어 여행 기념품으로 구매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우평 농회 양조장 霧峰農會酒莊

Add 타이중 우평구 중정로 345 호 (台中市霧峰區中正路 345 號)

Open 평일 08:00-17:00, 주말 09:30-17:30



단일 곡물 위스키 · 오크 숙성 럼주

전통 공법 탈피 · 혁신적 자동화 양조



타이닝 71 호 쌀을 주재료로 하는 원린 후웨이 (雲林虎尾) 에 위치한 양조장 후웨이낭은 위스키는 단일 맥아로 만들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며 원재료부터 양조 설비까지 모두 메이드 인 타이완을 고집한다. 타이완 현지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주재료로 한 양조 방식을 실현하였다. 후웨이낭의 상주 (囊酒) 는 타이완산 흑미를 단일 발효 공법으로 빚은 술로 처음에는 흑미죽의 향이 마지막에는 꿀의 달콤함과 견과류의 고소한 풍미가 어우러진다. 이곳의 위스키는 쌀 위스키로 단일 곡물을 사용한 독자적인 양조법으로 생산되며 오리지널 오크통 숙성 버전과 포도나무 오크통 숙성 버전 두 종류로 선보인다. 마시고 나면, 입안에 쌀밥향이 은은하게 남는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럼주는 '설탕의 도시'로 불리는 후웨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탕수수로 만들어진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자당을 발효, 증류한 뒤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며 완성된 럼주는 호박색의 고운 외관, 부드럽고 깔끔한 목 넘김,

그리고 사탕수수의 은은한 단맛과 우디향이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남긴다.

원린의 후웨이 양조장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양조장 투어를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술을 시음하고 각종 체험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화이트 럼주 클래스에서는 직접 제철 꽃과 과일을 골라 사탕수수 특유의 향이 나는 화이트 럼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직접 만든 럼주에 나만의 라벨을 붙여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



후웨이낭 虎尾釀 Favorland

Add 원린현 후웨이진 15-8 호 (雲林縣虎尾鎮 15-8 號)

Open 평일 09:00-12:00, 13:30-17:30, 주말 09:00-17:00 (최소 2 주전 예약 필수)



카발란 위스키

변치 않는 클래식, 국제적으로 알려진 순수하고 깔끔한 향



자기만의 위스키 블렌딩 체험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발란 위스키는 중앙산맥 및 설산산맥의 청정 수원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의 고급 오크통을 사용해 원액 그대로도 완벽한 풍미를 선사한다. 클래식 솔리스트 시리즈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Vinho 와인통 숙성 위스키는 과일 향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다크초콜릿과 캐러멜의 달콤 쌉싸름한 맛이 어우러지고, 마지막에는 스모키 향이 강한 여운을 남긴다. 미국산 화이트 오크로 만든 버번통에서 숙성 위스키는 우디향과 카발란 특유의 열대 과일 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입안에서 다양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가장 희귀한 스페인

Amontillado 셰리통 숙성 위스키는 독특하고 다양한 차원의 색과 향을 지니며, 꽃향기와 함께 시나몬 향이 은은하게 풍겨 마치 술에 절인 체리의 풍미를 연상케 한다. 여기에 애플파이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지면 한층 더 색다른 풍미를 즐길 수 있다.

이란(宜蘭)에 있는 진처 카발란 위스키 양조장은 특별한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증류 공장에서는 위스키 양조, 발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바로 옆 도로 거리에 위치한 카발란 위스키 성으로 이동

하면, 시음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위스키 성에서는 희귀한 편천 캐스크 위스키 외에도 카발란 양조장이 한정판 마데이라통 위스키 있다.

방문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체험은 나만의 위스키 블렌딩 클래스로 참가자들은 버번, 셰리, 포트, 피트 등 네 가지 베이스의 위스키를 사용해 나만의 독창적인 맛을 제조할 수 있으며, 완성된 위스키는 병에 담아 집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

진처 카발란 위스키 金車噶瑪蘭威士忌
Add 이란현 웬산향 웬산로 2 단 326 호
 (宜蘭縣員山鄉員山路二段 326 號)
Open 09:00-18:00, 입장료 없음



섬나라에서 만나는 좋은 술 OMAR 위스키, 위산 고량주, 타이완 술의 새 획을 긋다

풍요로운 농산물과 다양한 면모의 자연을 품은 타이완은 뛰어난 기술로 타이완 특유의 술문화를 형성했다. 기후, 깨끗한 물, 현지 과일 그리고 곡물까지 모두 타이완의 뛰어난 술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100 년의 역사를 가진 대만담배주류공사(TTL)의 제품인 OMAR 위스키와 위산 고량주는 다양한 과일향과 바이주의 풍미를 함유했으며 이를 통해 타이완 양조 기술과 독창성을 볼 수 있어 최근에는 국제 무대에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다. 처음으로 맛을 보시거나 색다른 맛의 현지 술을 찾고 계신 분들 모두 타이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



OMAR 위스키

타이완 난터우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OMAR은 전통 공예 양조법으로 만든 싱글 몰트 위스키를 취급하고 있다. 천혜의 기후 환경과 중앙산맥에서 흘러온 깨끗한 물로 위스키가 숙성하는데 최고의 환경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카라멜 미첨가, 철 필터링 미작업 등의 철학을 고수한 OMAR은 오리지널 자연의 맛 그대로 담으면서 타이완의 과일 양조 문화를 더한 독특한 점을 내세워 '독특한 풍미의 배럴 시리즈'를 통해 타이완만의 과일향 위스키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1 매실 배럴

난터우 신이향의 청매실주 배럴에 위스키를 피니시 숙성시켜 은은한 과일 향과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2 리치 배럴

장화 바과산 특산품인 리치를 양조해서, 그 배럴을 사용해 피니시 숙성하여 매혹적인 과일 향을 자랑하며 몰트 위스키의 전통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타이완 현지 요소를 가미해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3 포도 배럴

장화 얼린의 블랙퀸포도를 선용하고 양조해서, 그 배럴로 위스키를 피니시 숙성시켜 붉은 루비 광택을 뽐내며 시큼함과 달달함이 어우러져 전형적인 타이완 포도향을 느낄 수 있다.

4 오렌지 배럴

오렌지 브랜드 배럴에 피니시 숙성시켜 익숙한 오렌지향을 더해 기준에 부드러운 위스키에 풍부한 맛과 상쾌함이 가미되었다.



미성년자 음주금지. 지나친 음주는 뇌

판매처



타오위안 국제공항 TTL 면세점 (제 1 터미널) 桃園機場第一航廈台灣菸酒免稅店

Add 타오위안시 다위안구 향잔난로 9 호
(타오위안 국제공항 제 1 터미널 3 층)
(桃園市大園區航站南路 9 號 (桃園機場第一航廈 3 樓))

Open 24 시간 영업



오마르 위스키 하우스 OMAR 威士忌館

Add 타이베이시 다안구 진산난로 2 단 219 호
(台北市大安區金山南路二段 219 號)

Open 10:00-19:00



난터우 양조장 南投酒廠

Add 난터우현 난터우시 중공리 동산로 82 호
(南投縣南投市車功里東山路 82 號)

Open 09:00-17:00



푸리 양조장 埔里酒廠

Add 난터우현 푸리진 중산로 3 단 219 호
(南投縣埔里鎮中山路三段 219 號)

Open 09:00-17:00 (토 - 일요일은 17:30 까지)



자이양조장 嘉義酒廠

Add 자이현 민송향 푸러촌 중산로 4 호
(嘉義縣民雄鄉福樂村中山路 4 號)

Open 09:00-17:00



A 난터우 양조장의 지하 주류 저장고이다. B 난터우 양조장의 위스키 관광 양조장은 유럽식 고성 건축물로, 2026년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산 고량주

타이완 사람들에게 친숙한 위산고량주는 70 년의 역사를 품은 바이주 브랜드다. 타이완산 우수한 수수를 엄선한 원료를 깨끗한 물 원천과 일교차가 큰 자난평원에서 양조 및 숙성을 통해 진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자랑한다. 위산시리즈 제품은 긴 세월 숙성되거나 금박지와 독특한 포장을 활용하는 등 시간과 기법을 공들여 맛을 보거나 선물용 모두 타이완 전통 바이주의 정교함과 맛 모두 느낄 수 있다.

위산 고량주 XO

타오위안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독점 판매 중인 와인 제품이다. 최고급 수수와 밀로 양조 및 제조를 한 후 도자기 항아리에서 5년 이상 숙성시켜 산뜻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제품으로 손꼽힌다.



위우진 골드 8 년산 고량주 선물세트

8년 이상 숙성된 바이주를 엄선한 후 맑은 바디감에 식용 금박을 더해 진한 과일 향과 우디 향이 어우러진 풍미로 선물이나 소장용으로 안성맞춤이다.



위산진 골드 8 년산 고량주 선물세트 (잠룡쟁휘 (潛龍爭輝))

8년 이상 숙성시킨 원액을 브랜딩만 후 소량의 금박지를 사용해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맛과 동시에 자연의 곡물향과 긴 여운을 가져다준다.

대만담배주류공사 (TTL)

1901년에 설립된 TTL은 타이완 재정부 산하의 국영 기업으로 타오위안양조장 (사케), 푸리양조장 (소흥주), 난터우양조장 (위스키), 자이양조장 (고량주), 룡텐양조장 (고량주) 등 주요 양조장을 소유하고 있다. 전통 고량주 및 위스키 외에도 과일주, 바이오테크 제품과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 R&D 및 양조 기술로 타이완 고유의 특징이 담긴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타이완 철도 투어

섬 일주 슬로우트래블 철도 지선의 비경을 탐험하다

글 / 류자오후이 (劉昭輝)

도시부터 시골까지, 바닷가부터 숲 속까지 완벽한 철도 시스템을 자랑하는 타이완에서는 기차와 가벼운 발걸음만으로도 타이완 섬 곳곳에 숨은 비경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느린 여행 스타일로 여행객들은 편하게 타이완의 문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핑시선, 네이완선 그리고 바더우쯔 선아오 레일 바이크 등 ‘철도 + 도보’의 여행 스타일로 깊이 있는 탐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철도 지선을 다룰 것이다.

섬 일주 슬로우트래블 기차와 도보로 타이완의 멋을 만끽하다

타이완 내 철도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가용이나 대형 차량 교통수단으로 인한 여행 피로감 대신 기차 이용과 도보만으로 도 깊게 숨겨진 비경 명소를 즐길 수 있다. 기차의 편안함과 관광지로의 접근성으로 차 렌트나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어 가족단위 또는 어르신들 모든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특색 있는 철도 지선으로 현지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고
자유로우면서도 색다른 슬로우트래블을 즐길 수 있다.



기차 + 도보 여행의 장점

타이완 섬 일주 가볍게 즐기기다

섬 전역에 완벽한 철도 시스템을 구축해 타이완을 찾는 여행객들은 타이완 서쪽과 동쪽을 자유로이 넘나들며 타이완의 도시와 시골 곳곳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깊이 있는 탐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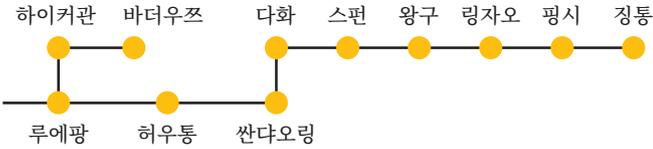
여행객들은 역에 도착한 후 주변에 위치한 역사 거리, 자연 경관 또는 지역 대표 미식거리 등을 천천히 즐기면서 여행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친환경 여행

기차와 도보로 즐기는 여행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환경 친화적으로 타이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핑시선

천등의 낭만을 찾아 산속 도시를 거닐다



타이완의 대표 철도 지선 중 하나인 핑시선은 숲 속과 계곡, 독특한 지질 경관을 넘나들며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도록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여러 역들을 하나로 이어준다.

추천 명소 (도보 여행지)

A 징통역

100년의 세월을 거치며 옛 정취를 품은 역으로 역 주변의 대나무 통에 소원을 걸어 바람에 따라 소원을 전하는 길거리와 동시에 석탄 광산 유적지를 탐험할 수 있다.

B 핑시역

천등을 날리는 곳으로 유명하며 곳곳에 역사 요소가 담겨있어 특유의 향수를 자아낸다.

C 스펀역

환상적인 의식 체험! 기차 선로 위에서 천등을 잡은 채 소원을 써내려간 후 가볍게 불을 붙이고 난 뒤 소원을 담은 천등이 하늘 위로 유유히 날아가는 광경을 상상해보면 낭만 그 자체이다. 또한 근처의 스펀폭포 또한 구경할 수 있다.



스펀폭포(十分瀑布)



D 허우통역

고양이 집사들에게 허우통 고양이 마을은 그야말로 천국과도 다름없는 곳이다. 허우통에 발을 내딛는 순간 고양이들이 지붕 위에서 한가로이 햇빛을 쬐는 모습부터 역에서 여행객을 맞이해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고양이들, 그리고 광업 역사 건축 유적지를 볼 수 있다.



허우통역에 가면 광업 역사를 탐방할 수 있다. 사진은 루이싼 광업 제탄 공장이다.



여유롭게 경치를 볼 수 있는 완행 핑시선 열차와 도보를 통한 여행이 현지 문화를 심도 있게 즐길 수 있다.



선아오 레일바이크

A 지롱 바더우쯔역 반도에 위치한 차오징공원(潮境公園)이다.

바다와 하늘을 누비는 라이딩 체험

특수 제작된 선아오 레일 바이크로 폐선로를 따라 눈부신 해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레일 바이크는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해야 한다.

추천 명소 (도보 여행)

A 차오징공원

도보로 장관을 이루는 해안과 조간대 생태계를 탐험한다.

B 선아오항구

판짜이아오화강암절벽, 선아오갑곶 등 천연 암석 경관이 웅장한 모습으로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B-1



B-2

B-1 선아오역. B-2 선아오역 인근에 있는 레일바이크를 타서 주변의 해변을 탐굴할 수 있다.

기차가 바더우쯔역에 도착한 후 레일 바이크와 도보로 통해 주변 해안가를 둘러볼 수 있다. 특히 바닷가가 보이는 카페는 바다와 하늘을 전망하기에 최고의 장소로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타이완 북부 바닷가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섬 일주를 즐기는 여행객을 위한 철도와 도보 코스

철도 지선 노선 탐승

핑시선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루이팡역까지 간 다음 핑시선 열차로 환승할 수 있다.

선아오선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루이팡역까지 간 다음 반대방향으로 선아오선 열차로 환승한 후 바더우쯔까지 간 다음 선아오 레일 바이크를 즐겨보자.

네이완선 타이베이에서 기차로 신주역까지 가거나 고속철도로 신주역까지 간 다음 류자선을 탄 뒤 주중역에서 네이완선 열차로 환승한다.

철도 지선 여행, 기차와 도보 여행으로 여행객들은 타이완을 몸소 체험하면서 가장 순수한 슬로우 트래블을 즐길 수 있다. 산속 도시, 하카 문화 또는 해안에서 철도 지선을 즐기는 모든 이에게 여행의 추억을 안겨줄 수 있다.

네이완선

추억의 고향에서
하카 문화를 느끼다

신주 지역에 위치한 네이완선은 숲 속과 계곡을 지나는 경치를 따라 하카 문화가 가득한 작은 마을로 안내한다.

추천 명소

(도보 여행하기 좋은 코스)

C 네이완역

네이완의 옛 거리 하카 정취가 묻어나는 거리를 거닐면서 만화가 류싱친의 고향에서 만화 문화 작품과 발명품을 감상하고 옛 극장을 둘러보면서 하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D 허싱역

‘사랑의 기차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유명하다. 1958년 남자 주인공이 기차역에서 여자 주인공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 후 기차를 놓쳐 무려 2.1km를 달린 남자 주인공은 결국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따라잡아’ 부부의 연을 맺었다. 기차역이 폐역으로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두 사람은 역을 사들여 위기의 순간에 벗어났다. 오늘날 허싱역은 사랑의 관광명소로 재탄생해 행복과 낭만을 상징하는 여행 명소가 되었다.

C 네이완역, D ‘사랑의 기차역’이라고도 불리는 허싱역, D-1 허싱역 내부의 설치미술 ‘사랑의 시간표’



기차로 네이완에 도착해 옛거리와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카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다.



철도 여행의 매력이 담긴 타이완 기차 여행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140만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 그룹 기차 여행 ‘599 기차로 타이완을 유유히 즐기다’를 방문하면 여행 동반자와 또는 혼자서 기차로 여행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멋진 인생 후반부를 보내고 있는 중장년층의 여행 공유담을 볼 수 있다.

배낭메고 가볍게 타이완 기차와 도보로 즐기는 섬 일주를 향해 떠나보세요!

Profile

599 오랫동안 즐기기 (599 玩久久)

페이스북 그룹 ‘599 기차로 타이완을 유유히 즐기다’ 운영자인 류자오후이는 야외활동, 지방 문화 및 역사, 타이완어, 한시 낭송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보내고 있다.



타이베이의 시간 여행지, 다다오청을 걷다

타이베이라는 도시는 놀랍게도 고층 빌딩과 현대적 인프라 속에서도 과거의 숨결을 품고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다다오청(大稻埕)은 근대 타이베이의 상업과 문화, 건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으로, 타이완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손꼽힌다.

다다오청이라는 이름은 ‘큰 논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과거 이곳에 넓은 쌀 건조장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리적으로는 타이베이시 다통구(大同區)에 속해 있으며, 중심 거리인 디화제(迪化街)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일반적으로 다다오청으로 불린다.



상업의 중심지에서 문화의 보고로

다다오청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중반이다. 1850년대 이후 타이완 북부가 국제 무역항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는 차(茶), 쌀, 직물, 약재 등을 거래하는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860년대에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외국계 무역상들이 진출하면서 북타이완 최대의 무역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업적 번영은 도시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891년에는 타이완 최초의 철도인 푸터우선이 개통되었고, 1901년에는 다다오청역(大稻埕驛)이 들어섰다. 철도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더 큰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는 이 일대에 극장과 서점, 카페 등 문화공간이 조성되었고, 일본 건축양식이 혼합된 근대 건물들도 다수 들어서며 도시의 풍경을 바꾸었다.

디화제, 걷기만 해도 과거를 마주하는 거리

다다오청의 중심에는 디화제라는 거리가 있다. 19세기 중반부터 상업 활동이 시작된 이 거리에는 현재까지도 차와 약재, 건어물, 천,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게는 대를 이어 운영되고 있으며, 건물들 역시 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거리의 건축은 복건식, 일식, 신고전주의 양식이 혼합되어 있어 시각적으로도 흥미롭다. 좁고 길게 뻗은 건물 내부에는 중정(中庭, 안뜰)이 자리하고 있어, 외부에서 보기보다 훨씬 깊은 구조를 지닌다. 최근에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상점 외에도 카페, 디자인 숍, 갤러리 등이 입점하며 젊은 층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디화제를 걷다 보면, 단순한 상점가를 넘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적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어릴 적 할머니가 써주시던 한방 찜질 약 냄새와, 갓 볶은 커피 향이 어우러지는 듯한 오묘한 공기. 이곳의 매력은 그 '혼합성'에 있다.

믿음과 사랑이 공존하는 공간, 샤하이 청황묘

다다오청의 또 다른 상징적인 장소로는 샤하이 성황묘(霞海城隍廟)가 있다. 1859년에 지어진 이 사당은 도시의 수호신인 성황(城隍)을 모시는 곳이다. 특히 이곳은 '월노(月老)'라는 결혼과 연애의 신이 함께 모셔져 있어, 타이완 내에서도 연애와 결혼을 기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매우 인기 있는 장소로 손꼽힌다.

사당 안에는 뻑뻑하게 걸려 있는 소원패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적은 이름과 소망을 걸어두며, 인연을 기다린다. 이처럼 역사적인 거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바람과 기도가 깃든 공간이기도 하다.

다다오청이 특별한 이유

다다오청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은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기능하고 있다.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역사와 문화를 지키며, 그것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했다.

여행자로서 이 거리를 걷는다는 건, 단지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걷는 일이다. 옛 흔적을 만지고, 오래된 기운을 느끼며, 그 안에 스며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게 된다. 타이베이에서 다다오청만큼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은 드물다. 현대적 타이베이의 화려함 속에서도, 다다오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그 자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주혁

영상감독
타이완에 군것질하러 가자 저자
페이스북 소소한대만여행 운영자
에스 24 전 인터뷰 메인감독

인스타그램 @kim_juhyeok
소소한 대만여행, 台灣小旅行
FB: www.facebook.com/taiwanholic/

하오치우 (굿샷)! 골퍼들의 지상낙원! 타이완



카이랑 (노해랑)

대만에서 여행·문화 주제의 SNS 채널 운영자이면서 세계테마기행 (EBS1), 포르모사순례단 (EBC) 등 여행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대만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



A 타이완 골프장은 계절 변화와 상관없이 연중 라운딩이 가능하다. B 이란에 위치한 자오시 콜프클럽(Chiau Sih Golf Club)이다.

39,000! 이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수라고 한다. 이중 타이완에 조성된 골프장 수는 2024년 기준으로 단 60곳. 한국(약 800곳)과 일본(약 3,900곳)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타이완 골프장을 찾는 한국 골퍼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여행업자들의 증언은 곱씹어 볼만하다. 타이완에서의 라운딩은 과연 어떤 점이 매력적일까. 그토록 많은 한국 골퍼들이 찾아드는 것일까? 그리하여 이번에 타이완 골프장이 지닌 매력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았다.

타이완 골프장이 한국 골퍼들로부터 각광 받는 이유! 우선 아열대 지역의 기후 조건을 들 수 있다. 계절 변화와 상관없이 연중 라운딩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철에도 온화한 날씨(평균 기온 15-20°C)가 유지된다. 한국처럼 골프장이 겨울철에 갑자기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으로 둔갑되는 일도 없다. 타이완 북부 지역의 경우, 동절기때 일기에 따라서 체감기온이 5-10도로 내려가거나 비 뿌리는 날이 더러 있긴 하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타이완 중부나 남부 지역의 골프장 예약이 치열해진다고 한다. 두 번째로 골프장 접근성이 좋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나 남부의 가오슝 인근에 차량으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골프장이 다수 자리잡고 있다. 이렇다보니 평일 야간에도 티오프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비용 측면에서도 높은 가성비를 자랑한다. 한국에서는 높은 그린피와 캐디피, 카트비 등으로 인해 골프가 고비용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지만, 타이완은 그린피가 한국의 약 1/3 수준으로 저렴하다. 중부 지역에 있는 타이중 공군 골프장, 남부 지역에 있는 가오슝 해군 골프장 등 일부 군 골프장도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군 골프장의 더욱 저렴한 그린피는 타이완의 골프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캐디의 경우, 타이완은 대략 50~60대 여성분들이 간소한 복장을 착용

하고 근무한다. 전문성과 친절함은 한국 만큼이나 만족도가 높다. 물론 노캐디제를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골프장 종류도 다양하다. 대체로 18홀 규모가 일반적이지만, 27홀이나 36홀을 갖춘 골프장도 있다. 타이완 최초의 골프장인 '타이완 골프 & 컨트리 클럽(Taiwan Golf & Country Club)'은 1919년에 개장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타이베이 북서부 지역인 단수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골프장은 18홀(파 72, 약 6천 6백 야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페어웨이를 갖추고 있다. 1984년 개장한 난바오 컨트리클럽(Nan Pao Golf Country Club)은 27홀(파 108, 약 9천 6백 야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페어웨이가 넓기로 유명하다. 신이 골프클럽(Hsin Yi Golf Club)은 18홀(파 72, 약 7,377야드)로 타이완에서 가장 길고 넓은 코스로 유명하다. 주변 산세와 평원의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도 평가 받고 있다. 타이완은 산지가 70% 이상인 섬지역으로, 대부분의 골프장이 산비탈이나 언덕이 많은 지형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산지형 코스는 타이완 골프장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풍부한 지형 변화와 기복이 있는 윈시 지형은 골퍼들에게 창의적인 샷을 요구하며 타격의 정밀도와 도전 정신을 자극시킨다.

요컨대 타이완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골퍼들로부터 골프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타이완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높은 가성비의 골프피로 자연 지형을 살린 다양한 코스에 도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여유롭고 이색적이며 경제성까지 갖춘 인생 라운딩을 원한다면 멀리 찾을 필요도 없다. 다음 골프 투어는 타이완에서 티오프를!

나만 알고 싶은 타이난 골목 감성여행

타이난하면 떠오르는 높지않은 건물들, 잘 보존된 고적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누군가는 시간이 멈춘 듯한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감성 가게들이 타이난 여행의 매력이라고 한다.

최근 유튜브 맛따라 멋따라 대명어따라가 화제가 되면서 더 많은 한국 관광객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타이난.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타이난 골목 감성 가게를 소개해보려 한다.

이스트 타운 코 카페 East Town Co. Café

Add 타이난시 동구 동먼로 1 단 211 항 13 호 (台南市東區東門路1段211巷13號)

아는 사람만 아는 조용한 주택가 작은 골목에 위치한 카페. 일제 시대 때 지어진 이 주택은 당시 구청장이 거주하던 주택을 개조해 카페로 만들었다고 한다. 질퍽한 식물에 둘러싸인 빨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래된 나무 프레임의 유리창, 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과 함께 옛 건물의 투박함 그리고 따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평소엔 특색 있는 핸드 드립 커피와 수제 디저트 그리고 파니니와 파스타, 카레 등의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은 금요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멋진 분위기의 바(Bar)로 변신한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재즈와 매뉴엔 없지만 재료만 있다면 똑딱 나오는 각테일. 그야말로 나만 알고 싶은 감성 가게다.



A-1 조용한 주택가 작은 골목에 위치한 카페이다. A-2 이스트 타운에서 평소엔 파니니와 파스타, 카레 등의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다다킴

타이완의 남부, 타이난에 거주중인 8년차 프로 생활러. 타이완인 남편 ED와 타이완의 생활, 다양한 문화, 여행과 미식을 주제로 한 11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 跟著多多一起走 Dada Kim
인스타그램 : conmigo_dada
네이버 블로그 : 보헤미안 다다킴



B-1



C-1



C-2

B-1 골목에 작지만 편안한 감성으로 무장한 가게이다. B-2 구멍을 낸 평빙 안에 흑당, 계란을 넣어 참기름에 지져 먹는다. C-1 츠칸 파머시 바에서 지역 문화와 스토리를 담은 칵테일이다. C-2 타이난 바의 매력은 타이난만의 뉴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핸드 하부 Hand Haabu

Addr 타이난시 북구 유민제 72 항 12 호 (台南市北區裕民街 72 巷 12 號)

타이난의 어느 골목, 작지만 편안한 감성으로 무장한 가게. 약사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사장님이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누구라도 편히 마실 수 있는 한방 찻집을 운영중이다.

여러가지를 조합한 한방차가 시그니처 메뉴. 다양한 종류에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현재 몸의 상태, 좋아하는 맛 등을 알려주면 그에 맞는 차를 추천해준다. 그리고 이 가게의 특별한 메뉴인 평빙(椶餅). 공갈빵과 비슷한 형태로, 원래는 출산 후 몸보신을 위해 먹던 것 중 하나였다고 한다. 타이난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디저트이며, 구멍을 낸 평빙 안에 흑당, 계란을 넣어 참기름에 지져 먹는다. 조용하고 편안한 가게에서 즐기는 정성 가득 한방차와 평빙으로 마음까지 힐링 받을 수 있는 곳.



B-2

츠칸 파머시 바 Chikan Pharmacy Bar

Addr 타이난시 중서구 츠칸제 45 항 3 호 (台南市中西區赤崁街 45 巷 3 號)

우리는 타이난을 역사와 미식의 도시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타이난은 Asia's 50 Best Bars 같은 세계적인 리스트에 오르며 국제적 주목을 받을 만큼 바가 유명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오래된 주택과 상점을 감각적으로 리모델링한 곳이 많아 타이난만의 뉴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지역 문화와 스토리를 담은 칵테일도 타이난 바의 매력을 더해준다.

옛날 한약방 컨셉의 츠칸 파머시 바는 현재 타이난에서 가장 핫한 바(Bar)로,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한약방인가 싶을 정도. 지독한 컨셉의 이곳은 내부도 약방처럼 꾸며져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시그니처 한방 칵테일도 만나볼 수 있다. 마음까지 치료해준다는 츠칸 파머시 바, 타이난의 여름 밤을 이곳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

장화 출신의

C H I T C H A T T I N G O V E R C O F F E E

탄수화물 영혼 환생기

글 / 류쯔제 (劉梓潔) 촬영 / Sia Sia Lee 촬영 협조 / 장즈웨이 (張志偉)

고향을 떠난 후 타지에서 갖가지 탄수화물을 접하게 되는데 정성스럽게 만든 브라우니, 몽블랑, 수플레, 진한 치즈와 생크림가 듬뿍 들어간 크레이프를 먹어도 정작 생각나는 것은 고향의 맛 휘또우핑 (綠豆甍) 이다...

사람은 전생의 기억과 욕망을 가지고 환생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장화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음 생에도 장화인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임종을 앞두고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탄수화물에 대한 욕망에 집착한다.

사람은 귀빠진 날부터 식성에 있어서 배움의 연속이다. 어린시절 다빙, 러우위안, 콩러우판, 용안케이크, 다위안모찌, 뉴셔빙, 빠오즈..... 반면 탄황수와 옛날 샌드위치는 나중 일이다. 장화 출신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매우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특히 장화지역 외의 탄수화물은 입에도 안 댄다고 한다. 타이베이로 상경해 타향살이를 하는 장화 출신의 고향 지인이 방문을 해도 선물로는 딱 러우위안 (肉圓) 만 지목한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따라 뜨거운 러우위안을 들고 통렌 고속버스를 타서 큰 고모 댁에서 먹은 적이 있었다. 열에 강한 비닐 봉투에 콕 찬 하얗고 기름진 러우위안 11 개와 불 두개로 만든 특제 소스에 버무려 신문을 겹겹이 싸자 기름향과 잉크향이 섞여 타이베이에 도착해서도 뜨끈뜨끈했다. 점차 저온 배달 기술이 발전하면서 친척분들이 고향에 돌아오시면 차가운 러우위안 한두 상자를 가져오시곤 한다. 타이베이에서는 냉장고에서 냉동 보관을 한 후 이따금씩 꺼내서 데워 먹으며 몸속의 장화의 영혼을 채워준다.

그렇게 러우위안을 좋아하진 않아 타이베이에 있을 때 장화 기념품은 바오전상 (寶珍香) 용안 케이크를 가장 많이 샀었다. 조그만 컵케이크로 동료나 드라마 촬영팀에게도 편하게 응원을 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바오전상이 중심지에 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다. 장화에 고속철도역이 없었던 시절에는 장화에서 타이중 고속철도역에 가려면 바오전상이 있는 장난로 (彰南路) 를 지나면서 검사 검사 두 상자 정도 샀었다. 다위안모찌의 차이터우쭈 (彩頭酥) 도 내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였고 맛을 본 친구들도 좋다고 했다. 단지, 유통기한이 매우 짧은 점, 다위안점이 위치해있는 미스테리의 조그만 골목의 성황묘 옆 가게는 (나는 아직까지도 갈 때마다 구글맵을 의존한다) 차 세우기가 아주 힘들다. 바오전상과 다위안이 타이중 고속철도역에서 공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점한다면 우바오춘 (吳寶春, 유명한 챔피언 베이커리) 보다는 잘 될 것이라고 본다. 그치만 중요한 것은 원조가게의 핵심은 '전문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고향을 떠난 후에는 타지에서 갖가지 탄수화물을 먹어도 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브라우니, 몽블랑, 수플레, 진한 치즈와 생크림가 듬뿍 들어간 크레이프를 많이 먹었어도 정작 생각나는 것은 휘또우핑이다. 친척이 많아 집안에 검사도 많은데 매번 장화에 돌아오게 될 때 식탁 위에 빠지지 않는다.

「FOUNTAIN 신활수 (新活水)」에 대해

《FOUNTAIN 신활수 (新活水)》의 각 호의 주제는 사회문제와 밀접한 내용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현상을 깊이 탐구하고 발굴하며 지역, 영역, 세대를 뛰어넘은 정신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강렬한 시각적 미학 요소로 잡지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며 문화적 대화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다.

약혼식에 중국식 파빙이 놓여있었는데 내가 중국식 파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요즘 세대는 리본이 달린 조그마한 서랍 보석함같이 생긴 프랑스 디저트를 좋아한다. 나는 여동생과 큰 상자에 아홉 조각의 조그만 과자들을 다 먹은 다음 곧바로 6인치 참깨와 호두가 들은 검은콩 러우빙을 자른다.

케이크, 과자의 명소인 타이중으로 거주지를 옮긴 다음 기념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타지 사람들도 명성을 쫓는 가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처음에는 일출 펄리수, 준미 송즈수, 천원바오취안 화과자를 샀었지만 지금은 칭수이시렌, 메이팅제의 상거리광과 같은 ‘현지인만’ 아는 곳을 발견했다. 다만, 홍루이젠 샌드위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게 장화 남쪽 출신들은 ‘홍루이젠’만 들어도 ‘수탕수빙’을 반드시 떠올린다고 한다. 수탕은 김 땅콩

사탕, 수빙은 조그만 복숭아 과자인데 지금은 베이더우 본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념품은 중식다빙 장치용안이라는 곳이다. ‘모치 (默契)’라는 현지 문화 카페와 화려한 진첸마오 호텔 중간에 위치하며 매장에서는 뜨거운 차를 포함한 다양한 시식을 제공한다. 나는 보통 아몬드 케이크만 고집하는데 비공개 검은깨 아몬드 케이크면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만약 추천한다면, 폭신한 케이크류로 아몬드 맛은 마치 고수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지만 장화출신들에게는 마치 탄수화물 영혼이 담긴 맛이라고 본다. 외지인이나 외국 친구에게는... 그래도 역시 펄리수가 더 무난할 듯 하다.

내가 좋아하는



태양병 / 상거리광

타이중 사람들이 먹는 태양병에는 2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겉이 얇고 매우 바삭해 입에 넣는 순간 녹는 타입과 또 하나는 계란 노른자가 겉을 코팅한 잘 부서지지 않으며 식감도 부드러운 타입이 있다. 상거리광은 후자로 깊은 우유 맛을 자랑하며 가격도 저렴해 등산용 간식으로 많이 찾는다.

판매 가격 TWD\$120/ 박스 (5 개입)
매장 주소 타이중시 북구 메이팅제 557 호



아몬드 전병 / 시리렌

타이중에는 아몬드 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적지는 않은데 바삭한 전병으로 만드는 곳은 시리렌밖에 없을 것이다. 두께가 얇으면서도 단기간에 구워 가벼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한 박스에 몇개가 쌓여있어 차에 곁들여 먹기 좋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다크 초콜릿 식감의 매력도 맛보길 권장한다.

판매 가격 TWD\$480/ 박스 (6 개입)
매장 주소 타이중시 칭수이구 중산로 333 호 (칭수이점)

Profile

류쯔제 (劉梓潔)



1980 년생 타이완 장화 출신으로 작가 겸 시나리오 작가. ‘부친상 후 7 일 (父後七日)’ 이란 작품으로 린 룡산문학상 산문부문을 수상했으며 동명 영화의 연출 감독을 맡아 타이베이 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및 금마상 최우수 각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징혼계사 (徵婚啟事)’, ‘곤석애정고사 (滾石愛情故事)’ 의 시나리오 감독을 맡았다. 대표작으로는 ‘부친상 후 7 일’, ‘지금 이 순간 (此時此地)’, ‘즐겨쓰기 (愛寫)’, ‘화성 (化城)’ 산문집과 ‘사랑하는 아이에게 (親愛的小孩)’, ‘만남 (遇見)’, 단편소설집 ‘진심 (真的)’, ‘외부세계 (外面的世界)’, ‘자유게임 (自由遊戲)’, ‘너도 여기 있기를 (希望你也在這裡)’ 장편소설이 있다.

산의 소리, 란양싼테 ①

이민용

山之音——蘭陽三帖①



해가 진 후

별이 수놓인 검은 용단이 숲과 길푸른

산을 뒤덮어 잠을 재운다

바람의 소리는 마음과 풍경에 속삭이고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안개 흐르는 소리

처마 끝자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사랑하는 이의 고동 소리가 들리네

꿈 속에서는

별이 떨어지는 소리마저도 들리네

日落之後

繡著星星的黑色絨布垂落林木與植被

山要睡了

風的聲音一些細語交談著心情與風景

聽得見落葉的聲音

聽得見霧流動的聲音

聽得見水從屋簷滴落的聲音

聽得見愛人心跳的聲音

在夢裡

你甚至聽見星星掉落的聲音

해가 뜰 무렵에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과 화미조의 청명한 노래가

바람과 어우러져 나뭇잎을 흔드네

시간의 맥박을 재는

빛이 떠오르네

밝은 빛이 어두운 밤을 대신해 지구를 돈다고 널리 알린다

고요함은 여전히 한 장의 종이와도 같네

오르내리며 푸른 이끼를 밟는 발걸음을 기록한다

말과 웃음소리들은

침묵을 깨뜨리네

세상 그 어느 연인들의 말다툼보다는

숲의 한가운데에 더 많은 고요함을 간직하네

而日出之時

晨曦穿經雲彩的聲音與畫眉鳥家族的清唱

與風一起吹動樹的葉片

計量著時間的脈動

光升起

宣示白日取代黑夜運轉地球

寂靜仍然是一張紙頁

記錄腳步起落在踏板青苔的聲音

一些話語和笑聲

是為了打破靜默

而非與世界情人似的爭吵

更多的寂靜貯藏在森林的心



Profile 이민용 (李敏勇)

타이완 평동 출신. 1947년 가오슝에서 태어났으며 대학에서는 역사를 연구했다. 현재는 타이베이에 거주하고 있다.

한평생 문학을 직업으로 삼았으며, 일찍이 시 간행물 《샷갓》 편집을 주관했고, < 타이완 문예 > 사장과 < 타이완 문예 교류회 > 회장을 맡았다. 《구름의 언어》, 《어두운 밤》, 《진혼가》, 중국어-영어 대조 시선 《사모와 예수》 등의 작품과 산문, 소설, 문학평론과 사회평론집 등 90여 권을 출판했다.

우용평평론상, 우취류신시상, 라이허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제 11회 국가문예상 수상, 2022년 제 4회 행정원 문화상을 수상했다.



2025 타이완 관광 로드쇼

레 트 로



맛

TAIWAN

집



타 이 완

대구 | 2025.9.13(토) 13:00~17:00 장소:레이틀리92

부산 | 2025.9.14(일) 13:00~17:00 장소:영도스페이스원지



@TAIWANTOUR_KR



undiscovered
taipei
你所未見的台北

#챌린지48시간



타이베이
웹사이트

